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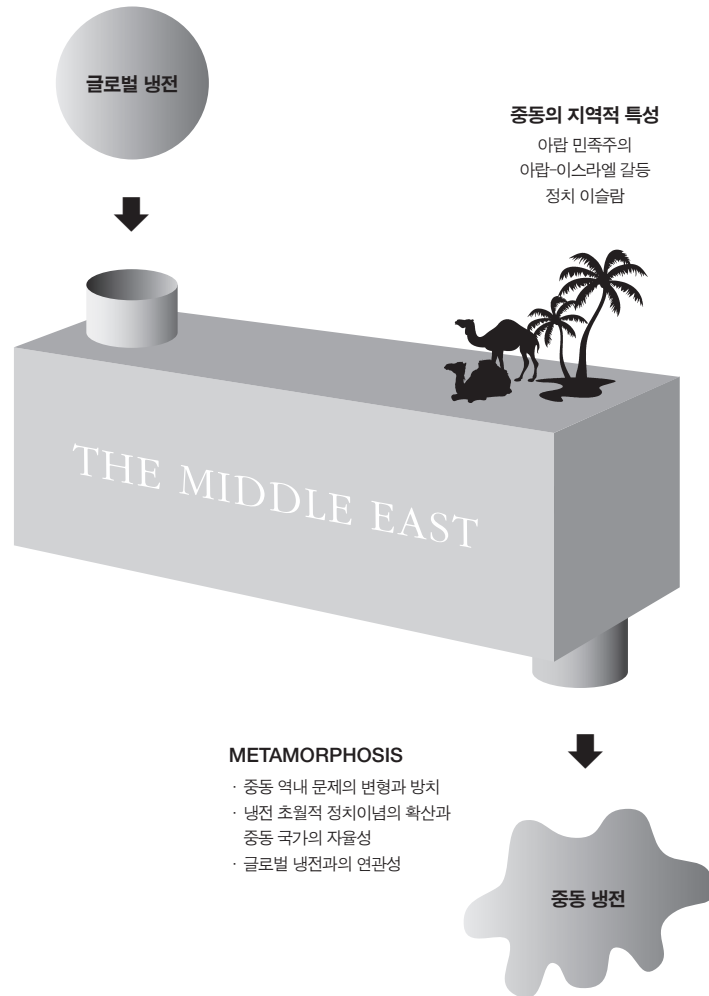
제4장

중동 냉전의 역사와 지역적 특성

Cold War History in the Middle East and Its Regional Traits

김강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강사

중동 냉전의 역사와 지역적 특성



중동 냉전사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중동 냉전의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나타난 아랍 민족주의, 아랍-이스라엘 갈등, 정치 이슬람이라는 지역적 특성의 변수와 글로벌 냉전의 규정성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냉전사를 기술한다. 첫째, 1955년 바그다드조약기구 출범 이후부터 1967년 6일 전쟁 발발까지의 시기는 아랍 민족주의의 창궐이라는 변수가 미국의 냉전적 개입과 맞물려 냉전 진영을 고착화시키는 과정을 추적한다. 둘째, 6일 전쟁 이후부터 1979년 캠프데이비드 협정 체결까지의 기간은 아랍-이스라엘 갈등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적 중재 노력이 냉전적 고려에 의해 한계를 노정하게 되는 과정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1979년 발발한 이란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정치 이슬람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이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글로벌 지하드라는 혁명적 변형을 양산했는지를 규명한다. 이러한 냉전사에 대한 분석적 서술을 통해 역내 문제의 변형과 방치, 냉전 초월적 이념 변수의 등장과 중동 국가의 자율성, 그리고 글로벌 냉전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중동 냉전의 지역적 특성으로 제시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regional traits of the Cold War in the Middle East by investigating its Cold War history. In particular, in describing the historical narratives,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the interaction between effects of the global Cold War and variables of regional traits such as Arab nationalism, the Arab-Israeli Conflict and Political Islam. First, from the creation of the Baghdad Pact in 1955 to the outbreak of the Six-Day War in 1967, this research traces the process of polarization of Arab nations according to sphere of influence in the Cold War due to interaction

between Arab nationalism and American Cold War policy. Second, during the period from the Six-Day War to the Camp David Accords in 1979, this paper endeavors to show the limits of U.S. policy makers' efforts to mediate the Arab-Israeli conflict due to the priority given to victory in the global Cold War rather than resolving regional problems. Last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mergence of global jihad as a revolutionary metamorphosis and consequence of interaction between American intervention in Afghanistan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Islam after 1979, when the Iranian Revolution and the Soviet invasion of Afghanistan occurred. The findings from analytic descriptions of history reveal that regional traits of the Cold War in the Middle East include transformations and an abandonment of regional affairs and concerns, signifying ideological variables transcending the sphere of influence and autonomy of Middle Eastern states, and inextricable linkage to the global Cold War.

KEYWORDS 중동 the Middle East, 냉전사 Cold War history, 지역적 특성 regional traits, 아랍 민족주의 Arab Nationalism, 아랍-이스라엘 갈등 Arab-Israeli Conflict, 정치 이슬람 Political Islam, 글로벌 지하드 Global Jihad

I 서론

탈냉전 이후의 세계 정치질서에서 중동 지역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9·11 이후 중동 지역의 테러리즘의 문제가 국제정치의 핵심 주제로 대두되었고, 2011년 아랍의 봄 이래로 중동 각국의 급격한 정치변동 속에서 2015년 2월 현재 이슬람 국가(IS: Islamic State)의 문제는 미국 등 초강대국들이 대응해야 할 세계정치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오늘날 세계가 목도하고 있는 중동 정치지형의 불안정과 그에 따른 미국의 정치적 난관은 부시 행정부의 '대중동 확대구상(The Greater Middle East Initiative)'과 이라크에서의 상향식 민주주의 이식의 정치적 실험이 실패한 탓으로 치부될 수만은 없다.¹ 부시 행정부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미국과 중동관계의 역사적 유산을 오바마 행정부가 계승했다는 측면을 고려해 오늘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냉전을 포함한 과거의 역사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Khalidi 2009, 10).

이러한 관점에서 중동 지역에서 냉전의 문제는 국제정치학과 역사학 등 제반 학문의 관점은 물론 현실정치의 이해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연구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대상으로서 냉전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과

1 부시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 몰락 이후 이라크 북부 쿠르드, 중부 수니, 남부 시아 간의 종파별, 지역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력 분점식 민주주의(power-sharing democracy) 구축이라는 정치적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이라크의 정치적 혼란을 감안해 볼 때 이라크 내 민주제도 수립은 내재된 갈등요인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실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종파, 인종, 지역별 갈등과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권력분점식 민주적 제도에 관한 논의는 Lijphart(2005), Norris(2008)를 참조할 것.

연 냉전기 중동 지역에서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의 규정성이 지역정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것이다. 냉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은 중동 지역의 갈등과 분쟁, 중동 정치체제의 미발전과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미소 냉전의 변수가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Tibi 1992; Gerges 1994; Sluglett 2013).

한편, 자율적인 지역정치의 공간으로서 지역적 독자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중동에서 냉전의 영향력을 부차적인 차원에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냉전기 미국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담보하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중요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걸프 지역의 산유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소련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터키,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비아랍 국가에 대한 냉전 승리가 아랍 국가보다도 더욱 중요했다(Halliday 2005, 97-98). 무엇보다 중동 지역에서는 예멘 인민민주공화국(PDRY: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을 제외하고는 사회주의 혁명이 시도되거나 공산주의 이념에 토대한 정당이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또한 아랍-이스라엘 갈등을 비롯한 냉전기의 각종 분쟁은 냉전적 고려에 의해 발발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종파주의, 민족주의 등 내재적 요인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중동 지역에서 미소 간의 세력권 경쟁은 자유진영, 공산진영 간의 직접적 대결의 성격은 크지 않았으며 냉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Halliday 2005, 97-129).

이러한 냉전의 영향력에 관한 상반된 인식을 고려할 때 미소의 규정성과 지역의 독자성이라는 두 변수 모두 중동 지역의 냉전

을 이해하는 데 함께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상정될 필요가 있다(Shlaim 1997, 2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변수가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냉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중동 냉전사를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중동 지역의 지역적 특성으로서 아랍 민족주의, 아랍-이스라엘 갈등, 정치 이슬람 세 가지 변수에 주목하고, 미국의 냉전 전략이 이러한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변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중동 냉전사의 시기 구분은 아랍 민족주의의 쇠퇴를 초래한 1967년 6월 전쟁, 그리고 정치 이슬람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1979년 이란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기점으로 한다. 이와 같은 냉전의 역사에 대한 분석적 서술을 통해 중동 냉전의 지역적 특성을 제시한다.

II 아랍 민족주의의 부흥과 중동 냉전의 고착화 (1955-67)

1. 바그다드조약기구의 창설과 냉전의 중동 지역 침투

냉전의 중동 지역 침투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유럽의 냉전이 동북아시아와 중동 지역 등 제3세계로 확산되면서 시작되었다. 냉전

- 2 지리적 범주로서 중동(中東, the Middle East)을 지칭할 경우 통상적으로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아랍 국가와 비아랍 국가인 터키, 이란, 이스라엘을 포함한다. 이 글에서는 중동 냉전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정치변동이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중동 지역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을 중동 지역에 포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개시 이전의 중동 지역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위임통치하게 되면서 유럽의 제국주의 세력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불 중심의 힘의 공간에 냉전이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한 계기는 1955년 바그다드조약기구(Baghdad Pact)의 출범이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추진한 중동 집단방위체제 구상에 따라 파키스탄, 터키, 이라크, 이란, 영국 5개국으로 구성된 바그다드조약기구가 출범하게 되면서 미소냉전 대결이 심화된 것이었다. 바그다드조약기구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이라크의 가입은 미국이 원래 의도했던 중동 집단방위기구(MEDO: Middle East Defense Organization) 형태의 집단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MEDO 구상은 아이젠하워의 뉴룩(New Look)전략하에 NATO, SEATO, ANZUS 등 다른 지역의 안보망과 함께 추진된 냉전 정책의 산물이었다.

무엇보다 바그다드조약기구의 창설은 터키, 파키스탄, 이란의 이른바 북부지대(northern tier)에 집중되었던 미소 간의 대결 구도가 아랍 전지역으로 확대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MEDO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었던 미국의 이집트 나세르 혁명 정부 포섭이 실패하면서 이집트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아랍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이집트와 이라크 간의 지역 패권 갈등은 냉전의 아랍세계로의 침투에 대한 상이한 대응 방식의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아랍의 공통 정체성에 근간한 아랍연맹(Arab League)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방위체제를 강조한 반면, 이

라크의 누리 사이드 수상은 지정학적 필요성에 토대한 중동 방위체제를 통해서도 아랍세계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하였다(김강석 2014, 9-10). 비록 1958년 이라크 내부의 쿠데타 발생과 그에 따른 유일 아랍 회원국의 탈퇴로 바그다드조약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었지만, 1955년 바그다드조약기구의 출범으로 중동 냉전이 아랍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중동 냉전 초기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에 틀림없다.

2. 아이젠하워 독트린과 아랍 냉전 구도의 개시

바그다드조약기구의 출범과 더불어 냉전 초기 중동 외교사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은 1956년 10월 수에즈 전쟁(제2차 중동전쟁)의 발발이다. 전쟁의 원인은 1956년 3월부터 미국 정부가 '오메가 플랜(Omega Plan)'이라는 작전하에 추진한 이집트에 대한 압박 정책에 반발하여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했기 때문이다. 나세르의 강경한 대응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연합국의 이집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고, 1956년 11월 연합국의 철수로 전쟁이 종결되었다.

수에즈 전쟁이 초기 중동 냉전사에 미친 중요한 영향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패전국 오스만 터키의 상당 부분을 위임통치하는 등 전통적 중동 지역의 지역 패권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사라진 힘의 공백을 미소냉전세력이 채우게 된 것이다. 둘째, 전후 제

국주의 세력에 대항한 아랍 민족주의의 리더로서 나세르의 명성이 확산되면서 나세리즘(Nasserism)이 아랍세계 전역에 크게 확산되었다. 특히 수에즈 전쟁 대처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 간의 균열이 드러나고, 영국과 프랑스가 아무런 성과 없이 이집트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아랍인들의 나세르에 대한 지지는 크게 상승하였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냉전적 시각에서 수에즈 전쟁 이후의 전략을 고심하였는데, 나세르의 비동맹주의 노선과 동구권과의 무기 거래 등 일련의 행동을 근거로 팽창한 아랍 민족주의가 중동 지역에서 소련의 영향력 확대에 이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하에 나타난 1957년 아이젠하워 독트린은 중동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사라져 가는 힘의 공백을 아랍 민족주의가 채우게 될 경우 중동 전역의 공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산물이었다(Takeyh 2000).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막강한 이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메카, 메디나 성지의 수호자(Khadim al-Haramain)로서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권위를 활용한다면 아랍 민족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두 핵심 국가 사이의 갈등의 골을 격화하는 것이 나세르의 지역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Gerges 2012a, 45). 한편 수에즈 전쟁 이후 미국이 바그다드조약기구와 같은 중동 집단방위체제를 활용한 소련 봉쇄 시도를 포기한 이유 중 하나는 동맹국 이스라엘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은 중동 내부의 안보기구가 소련에 대항한 봉쇄 기구가 아닌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위기구로서 기능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방위체제 구축 시도

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다.

따라서 아이젠하워 독트린은 다소 봉쇄를 염두에 두고 아랍 민족주의를 봉쇄한다는 기조 하에 이슬람주의를 끌어들이으로써 말콤 커(Malcolm H. Kerr)가 지적했던 ‘아랍 냉전(Arab Cold War)’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Kerr 1971). 커는 1984년 1월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교(AUB: American University in Beirut) 총장 재직 시절 헤즈볼라에 의해 암살되는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기 이전까지 중동 정치와 관련한 학문적 수작을 남겼다. 무엇보다 그는 ‘아랍 냉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랍세계의 냉전 진영이 공산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간의 이념 대결이 아니라 보수적인 왕정 국가 그룹과 혁명적 민족주의 그룹 간의 대결 구도로 전개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냉전기간 대부분 보수 왕정국가들은 미국과 동맹을 맺었으나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남예멘의 혁명적 민족주의 국가들은 소련과 연합하게 되었다(Halliday 1997, 15).

이러한 ‘아랍 냉전’ 현상의 단초는 수에즈 전쟁 이후 아랍 민족주의가 왕정체제 국가들의 정권안보를 위협하는 가운데 중동 전역으로 확산된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이젠하워 독트린에 따라 나세리즘 봉쇄 전략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왕정국가를 활용하려는 미국의 개입은 왕정국가 그룹과 민족주의 그룹 간의 균열을 촉진하였다. 특히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나세르의 경쟁자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드(Saud bin Abdulaziz) 국왕을 육성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요르단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왕정연합(King's Coalition)을 결성하려 하였

다. 미국 정부는 1957년 2월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우드 국왕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하였고, 이라크의 압달라 왕세자와 회동을 주선하였다. 동년 5월 사우드 국왕의 이라크 방문이 성사되었고, 추후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과의 연합이 완성되면서 왕정연합 결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된다(김강석 2014, 15-16). 결과적으로 아이젠하워 독트린 발표 이후 아랍세계 내부의 보수왕정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기 시작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는 ‘아랍 냉전’ 구도의 양 진영을 지휘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3. 케네디 행정부의 아랍 민족주의 포섭 실패와 냉전 진영의 고착화

아이젠하워 독트린 발표 이후 본격화된 미국과 이집트 간의 갈등 관계가 지속되면서 1957년 시리아 위기, 1958년 레바논 위기 등에서 나타나듯 미국의 중동 지역에서의 전략적 손실이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국 간의 갈등 구도는 1958년 7월 이라크 쿠데타로 인한 친소 까심(Abd al-Karim Qasim) 정권이 수립되면서 변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이라크 공산 정권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권 확대를 모색하는 소위 ‘붉은 초생달지대(Red Fertile Crescent)’의 형성을 추구하였다. 이라크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이집트는 친소 이라크와의 대결 구도에서 승리를 모색하면서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미국 정부도

NSC 5820/1의 발표를 통해 나세르와의 대결을 회피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는데, 1950년대 후반 미국-이집트 관계는 이러한 회해 가능성이 증가하는 환경 속에 진행되고 있었다(Yaqub 1991, 256).

1961년 케네디 행정부는 이러한 아이젠하워 행정부 말기의 미국과 이집트 간의 점진적 협력 가능성 증대 속에서 출범하였다. 특히 케네디 행정부의 제3세계 외교정책이 로스토우(W. Rostow) 등 정책 입안자들의 영향 속에서 근대화 이론에 입각하게 되면서 PL480 등에 의거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랍 민족주의의 힘을 미국의 세력권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1962년 1월 10일 워싱턴은 이집트와의 관계강화를 목적으로 한 1) 이집트 정권의 지원 요구에 대한 부응, 2) 미국의 경제고문단 파견, 3) 나세르의 미국 국빈 방문 초청이라는 세 가지를 제안한다.³ 또한 미국 무부는 하버드 대학교의 에드워드 메이슨(Edward Mason) 박사를 이집트 경제 자문을 위해 파견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집트의 경제장관 카이주니(Abdel Moneim Kaissouni)가 미국을 방문하였다.⁴ 더욱이 1962년 10월 케네디 행정부는 1963-65년 기간 동안 이집트에 약 4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식량지원을 승인하였다(Gerges 1995, 294).

3 “Memorandum From Secretary of State Rusk to President Kennedy, Washington 20, 1962,” in *FRUS 1961-1963*, Vol. 17, No. 171.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1-63v17/d171>)

4 “Paper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1962,” in *FRUS 1961-1963*, Vol. 17, No. 276.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1-63v17/d276>)

하지만 이러한 미국과 이집트 간의 화해 무드는 지속되지 못했고, 케네디의 아랍 민족주의 포섭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양국 관계의 균열은 1962년 예멘 내전의 발발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인해 나타났다. 예멘 내전이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아랍 민족주의와 왕정체제를 대변하는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게 되면서 케네디 행정부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세르의 협조를 구할 수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집트는 예멘 내전을 대하는 미국 정부의 모호한 태도에 대해 반발하게 되면서 양국 관계의 갈등이 격화되었다. 예멘 내전의 문제와 더불어 이스라엘에 대한 호크 미사일(Hawkish Missile) 지원, 팔레스타인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실패 등은 나세르 행정부가 미국과의 화해를 어렵게 만든 또 다른 변수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아랍의 공통 관심사를 배제하고 있는 가운데 아랍 민족주의의 리더를 자처해 온 나세르가 미국과 화해하기에는 정치적 정당성의 약화가 우려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963년 케네디가 암살되고 존슨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미국의 아랍 민족주의 포섭 시도는 사실상 종결되게 되었다. 존슨 행정부는 민족주의 세력을 냉전 대결 구도 하에서 미국의 세력권으로 유도하는 전략적 노선을 사실상 포기하고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관계를 중시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케네디 행정부가 적극 반대해 왔던 이스라엘의 디모나(Dimona) 핵시설 건설에 대하여 존슨 행정부는 보다 유연한 태도로 접근했다(Shalom 1996). 이러한 맥락에서 존슨 행정부 시기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왕정 그룹과 이집트를 필두로 하는 민족주의 진영 간의 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아랍 냉전 진영이 고착화되었다.

III 아랍-이스라엘 갈등의 냉전 편입과 중동 평화협상의 한계(1967-79)

1. 6일 전쟁과 아랍-이스라엘 갈등의 냉전 편입

1967년 6월 발발한 6일 전쟁은 중동 냉전사의 분기점이었다. 전쟁의 여파로 아랍-이스라엘 갈등이 주요 외교 이슈가 되면서 지역 불안정 요소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내부의 갈등에서 아랍-이스라엘 갈등으로 변화되었다. 무엇보다 6일 전쟁은 아랍-이스라엘 갈등을 미소냉전 경쟁 구도로 편입시킨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아랍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증가하였고, 아랍의 냉전 후견국으로서 소련의 유용성에 대한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Gerges 2012b, 177-178). 나세르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아랍에 대한 공격을 허가했다고 비난했다. 전쟁의 결과 아랍 연합국의 무기력한 굴욕적 패배로 아랍인들의 반미주의가 심화되고, 아랍 국가들과 미국 정부 간의 외교관계 악화, 이스라엘의 점령지 반환문제 쟁점화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문제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이젠하워와는 달리 나세르는 존슨이 전쟁 기간 이스라엘의 아랍 연합군에 대한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Gerges 2012b, 182). 6일 전쟁이 개시되자 미소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은 이전의 두 차례 중동전쟁에 비해서 확연히 냉전적 고려에 의해 구분되었다. 소련은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관계를 단절했지만, 미국은 이전 두 번의 전쟁에서 취했던 행동에 비해 이스라엘

의 군사행동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Halliday 2005, 116). 또한 1967년 전쟁은 지역의 피후견국들이 냉전의 후견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전후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중시하면서 F-4 팬텀 전투기를 비롯한 최첨단 군사전력을 이스라엘에게 지원했다.

무엇보다 전쟁 이후 미국은 냉전 봉쇄의 유용한 지역 전략적 자산으로서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지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지역 안정의 열쇠라는 미국의 인식은 1970년 9월 소련의 비호 아래 시리아가 요르단을 침공하면서 발발한 요르단 위기 시 이스라엘의 역할에 주목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은 닉슨 독트린을 통해 미국이 추구한 지역 동맹국을 활용한 대소봉쇄 전략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소련도 이집트와 시리아에게 첨단 지대공 미사일(SAMs: Surface-to-Air Missiles)을 제공함으로써 동맹국들의 무장을 독려하였다. 따라서 1967년 6일 전쟁 발발 이후부터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발발 이전까지 미소는 자신의 지역 동맹국들의 무장화를 촉진하면서 냉전적 개입을 심화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6일 전쟁의 결과 아랍-이스라엘 갈등이 본격적으로 냉전에 편입하게 되면서 미국-이스라엘 동맹관계가 더욱 견고하게 되었고, 반 이스라엘 국가들도 소련과의 군사적 관계를 더욱 결속하게 되었다. 존슨 행정부는 6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군사적 승리가 베트남 전쟁의 난관과는 대비되는 제3세계 냉전 승리의 청신호로 인식하였다. 반면 이스라엘로부터의 점령지 반환 문제 등 전후 처리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보수 진영과 민중

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하는 아랍 내부의 갈등보다 아랍-이스라엘 간의 갈등 해결이 중동 국제정치의 핵심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2. 냉전적 고려와 1970년대 아랍-이스라엘 평화협상의 한계

1) 냉전과 키신저 왕복외교의 한계

6일 전쟁 이후 미소의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 증가 등의 여파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으로 이어졌다. 미국 정부는 냉전의 관점에서 제4차 중동전쟁을 동맹국에 대한 소련의 공격으로 해석했다. 전쟁 발발로 인한 OAPEC의 석유 금수조치로 인해 국제사회에 오일쇼크가 야기되자 미국은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한 중동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지속되는 아랍-이스라엘 갈등이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아랍-이스라엘 갈등 해결이 미국 외교정책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제4차 중동전쟁 이후 닉슨 행정부는 키신저 국무장관을 중동 지역에 파견하여 아랍-이스라엘 양측의 갈등 해결에 집중하였고, 이는 키신저의 '왕복외교(shuttle diplomacy)'에 의한 갈등 중재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은 주요 아랍 국가, 특히 이집트와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였고, 적극적인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평화회담 중재가 시도되었다(Kissinger 1982). 하지만 미국이 시도한 일련의 아랍-이스라엘 갈등 중재 노력은 냉전적 요소에 대한 고려로 인해서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일부 성과는 있었다. 예를 들면, 1973년 제네

바 평화회담, 키신저의 주도하에 성사된 이스라엘 군대의 이집트, 시리아에서의 철수 협정, 1977년 포괄적 중동 평화해결을 위한 미 소 공동성명 발표,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적인 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캠프데이비드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honest broker)’로서 아랍-이스라엘 양측의 문제를 조율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의 역할은 평화체제 구축보다는 냉전 승리라는 국가이익에 더욱 집착한 ‘기만의 중재자(brokers of deceit)’로 간주될 수 있다(Khalidi 2013). 실제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아랍-이스라엘 분쟁이라는 지역적 차원의 갈등 해결보다 글로벌 냉전의 승리를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 평화협상 과정에 관여했던 윌리엄 콰트(William Quant)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키신저가 주도한 외교협상 과정에서 미국-이스라엘 간의 특별한 관계를 간과할 수 없었고, 미국 정치체제의 속성을 감안할 때 팔레스타인과 같은 아랍의 대의의 문제가 본격적인 협상 의제로 다루어지기는 어려웠다(Quant 2005, 172; 236).

따라서 ‘영토와 평화의 교환’의 원칙에 입각한 안보리 결의안 242호를 고수했던 나세르와는 달리 후임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영향력을 이집트에서 완전히 축출하려는 최우선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닉슨과 키신저는 본질적으로 평화협상 구축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지 않았다(Khalidi 2013, xxix). 한편 아랍 국가들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의 미국의 외교적

중재 노력에 대해 산유국들의 석유 금수조치와 반미감정을 약화시키고, 동맹국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압박을 제어하려는 의도의 산물로 평가절하하였다. 오히려 아랍세계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결코 공정한 중재자는 아니라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수행함으로써 팔레스타인 문제와 같은 아랍의 대의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갈등의 적극적 참여자(active participant in the conflict)”라는 것이다(Gerges 2012a, 52-53).

2) 냉전과 캠프데이비드 협정 체결의 한계

카터 행정부 당시 체결된 캠프데이비드 협정도 이전 행정부의 중재 노력이 보여준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캠프데이비드 협정으로 중동의 강국인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을 통해 역사적인 중동 평화체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시나이 반도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점령지 반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사실상 배제됨으로써 지속적인 갈등 요인을 도태하게 되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아랍의 대의의 문제들이 소련과의 대결에서의 우위 확보라는 글로벌 냉전의 고려에 종속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카터의 전략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키신저의 ‘점진적, 단계적 외교(step-by-step diplomacy)’의 연속선상에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Gerges 2012a, 54). 미국은 캠프데이비드 협정 체결로 중동 지역에서의 냉전 대결 구도에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제3세계 냉전 대결에서 ‘베트남 신드롬(Vietnam Syndrome)’을 겪었다고 한다면 소련은 ‘이집트 신드롬(Egyptian Syndrome)’을 겪

은 것에 비유할 수 있다(Halliday 1997, 15).

무엇보다 미국이 이집트를 자유진영의 세력권으로 유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견제해 왔던 지역 균형자의 상실과 그로 인한 역내 세력균형의 붕괴가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날 지배적인 아랍의 담론은 캠프데이비드 협상 과정에서의 카터의 역할이야말로 순전한 재앙이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견제받지 않는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하면서 중동 정치체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집트가 중동 정치의 균형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했다면 1982년 6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이로 인해 파생된 레바논 내전은 발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Gerges 2012a, 54). 당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친소 동맹국인 시리아와 PLO를 약화시키려는 레이건 행정부의 암묵적 독려하에 자행되었다(Halliday 2005, 117). 또한 글로벌 냉전이 와해되기 시작할 무렵인 1987년 팔레스타인 인티파다(Intifadah)의 발생에서 나타나듯이 일련의 평화협상 과정에서 아랍의 관심사를 배제한 것이 지역의 불안정성을 높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Halliday 2005, 118).

IV 정치 이슬람의 도전과 초국가적 지하드의 형성 (1979-89)

정치 이슬람(Political Islam)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이슬람 운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Ayubi 1991). 무함마드 압두(Muhammad Abduh, 1894-1905), 라쉬드 리다(Rashid Rida, 1865-

1935), 하산 알 반나(Hasan al-Banna, 190-49), 사이드 쿠틀(Said Qutb, 1906-66)과 같은 인물은 대표적으로 정치 이슬람 운동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한 중요한 이슬람 사상가이다. 특히 사이드 쿠틀의 이론은 '이슬람 본연의 기본 원리로 회귀하자'는 이슬람 근본주의 이념이 이슬람 과격주의의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념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쿠틀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었던 아랍사회를 이슬람 이전의 자힐리아(Jahilliya) 시대로 규정하고 행동주의에 기반해 자힐리아를 종식시키고 무슬림 공동체인 움마를 이루기 위해 지하드를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그의 사상은 알 지하드(al-Jihad), 알 자마아 알 이슬라미야(al-Jamaa al-Islamiyya), 알 타흐리르 알 이슬라미(al-Tahrir al-Islami), 알 타크피르 알 히즈라(al-Takfir wa al-Hijra)는 물론 오사마 빈 라덴의 알 카에다(al-Qaeda)와 같은 과격 이슬람 단체의 이념적 바탕을 정립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Qutb 2011, 18-48).

그런데 오늘날 목도하는 이슬람 과격주의 단체들의 확산은 이러한 사상적 토대와 더불어 냉전의 역사적 과정에서 벗어난 역사적 산물로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79년의 이란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두 사건은 이슬람 과격세력의 활동에 전기를 마련하고, 각국의 이슬람 운동을 고무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 1979년 이후 일련의 역사적 전개는 아랍 민족주의의 실패로 아랍세계의 대안적 이념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 이슬람이 중동 지역의 난제를 해결할 대안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면서 냉전 이후에 나타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과 서방 간의 대결 구도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 촉매제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1. 이란혁명과 정치 이슬람의 확산

1979년 이란혁명으로 레자 샤 팔레비(Reza Shah Pahlavi)가 퇴각하고,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Ayatollah Ruhollah Khomeini)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이 수립되었다. 이란혁명은 미소냉전 대결구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우선 닉슨 독트린의 중심축으로서 미국의 중동 지역 주요 동맹 자산이었던 이란의 친미 진영에서의 이탈을 의미했다. 당시 미국의 대표적인 냉전 동맹국가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었다. 특히 1953년 CIA에 의한 이란의 모사데끄(Mossadeq) 정권의 전복 이후 미국과 이란은 냉전 밀월관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미국은 냉전적 고려로 인해서 이란의 인권문제 등을 묵인해 왔다. 더욱이 1968년 1월 16일, 영국 해럴드 윌슨(Harold Wilson)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걸프 지역에 주둔하는 영국군을 철수하겠다고 선포하였고, 1971년 영국군이 완전 철수하면서 걸프 지역에서는 새로운 역내 질서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걸프 지역정치질서의 재편은 소련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당시 닉슨 행정부의 대중동 정책의 주요 관심사안이었다.

닉슨 행정부는 영국의 뒤를 이어 걸프 지역의 패권국을 자처하면서도 닉슨 독트린 하에서 동맹국들에게 스스로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우선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닉슨 독트린 하에서 미국의 걸프 지역 전략은 영국이 추구하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두 국가 중 어느 일방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내 세력균형 정책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변모되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는 이란의 일방적인 힘의 우위를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었다(Alvandi 2014; Alvandi 2012). 이러한 미국의 중동 지역 외교정책 변화는 이란의 걸프 지역 영향력 강화를 야기함으로써 이란-UAE 간의 툼(Tunbs)섬과 아부 무사(Abu Musa)섬을 둘러싼 도서 영유권 분쟁, 이란-이라크 간의 샤프트 알 아랍(Shatt al-Arab) 수로 분쟁 등 역내 국제관계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란혁명 이후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관계 조성은 미국의 대중동 정책의 노선을 대폭 수정하도록 만든 중요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52명의 미국 외교관들을 444일 동안 인질로 잡았던 1979년 11월 이란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의 발생은 중동의 역내 패권국인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를 노정하게 되면서 미국이 겪어야 될 전략적 손실의 단면을 보여 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미소냉전 대결구도의 측면에서 이란혁명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냉전을 초월한 정치 이슬람 운동이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중동 지역 내 냉전 진영을 흐리게 만드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나세르에 의해 주도되었던 아랍 민족주의의 실패 이후 대항 이념의 부재 속에서 이란혁명은 중동에서 실제적으로 이슬람을 근간으로 하는 정치권력이 창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특히 이란은 소위 문화혁명을 통해 이란 사회의 이슬람화를 촉진하면서 주변 중동 국가들에게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려 했다. 다시 말해서 호메이니에게 사의 몰락은 ‘긴 여정의 첫발(the first step in a longer journey)’에 불과했다(Takeyh 2009, 89). 따라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란혁명의 영향력이 주변 국가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경주하였

고,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의 발발은 이러한 이슬람주의에 대한 봉쇄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Takeyh 2009, 89).

특히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과 소련 모두 냉전의 진영과는 무관하게 호메이니 혁명 정부에 맞서 이라크를 지원하게 되었다(Gause III, 2010, 81-82). 무엇보다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을 시기에 개최된 블라디미르 비노그라도브(Vladimir Vinogradov) 이란 주재 소련 대사와의 회동에서 이란의 호메이니는 비무슬림 국가인 소련과 향후 협력관계 수립이 어려울 것임을 밝히고, 이란이 미국과 소련 양자의 진영에서 어느 일방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Westad 2007, 330). 이러한 사실은 이란혁명으로 인한 정치 이슬람의 힘이 중동 지역에서의 냉전의 규정성과는 무관하게 팽창하면서 냉전의 전열을 와해시키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미국의 무자헤딘 지원

아프가니스탄은 1978년 4월 혁명(Saur Revolution)으로 친소 성향의 군부에 의해 무함마드 다우드(Muhammad Daoud) 정권이 전복되고 인민민주당(PDPA: People's Democratic Party of Afghanistan)의 누르 무함마드 타라키(Nur Muhammad Taraki) 대통령이 이끄는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DRA: Democratic Republic of Afghanistan)이 출범하였다. 혁명의 결과보다 급진적인 할크 정파가 파르참 정파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타라키 정부의 친소비에트적 행보가 가속화되었다. 타라키 정부의 이와 같은 공산주의

통치에 대하여 동부 산악지대의 파슈툰족을 비롯한 다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반발하게 되었고, 아프가니스탄 정치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예를 들면, 1979년 2월 국면 전환을 위해 카터 행정부가 파견한 미국 대사 아돌프 펄스(Adolph Pubs)가 납치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있었으며, 1979년 3월 헤라트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폭동과 시위가 발생하였고, 아프간 군대 내의 탈영과 항명이 가속화되었다. 1979년 6월 23일에는 카불의 중심지에서 군사폭동이 있었고, 이어 8월 6일에는 아프가니스탄 군부대가 폭동을 일으켰다(Cooley 2001, 36-38).

이후 1979년 9월 타라키는 소련 정부와 협의를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뒤 카불로 귀국하자 체포되었고, 그의 보좌관이었던 하피줄라 아민(Hafizullah Amin)이 권력을 차지하게 된다. 1979년 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감행한 원인은 이슬람의 정치적 영향력 확장으로 인한 가중된 정치적 불안 속에서 아민 정부의 친미화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1979년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통해 중동의 동맹이던 이집트가 미국의 진영으로 이탈하는 것을 목도했던 소련의 정보기관 KGB는 이집트의 사다트와 마찬가지로 아민도 미국과 결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KGB는 1979년 10월 말 카불에서 성사되었던 아민과 미국 정부 인사 간의 회동에 주목하면서 이란혁명으로 샤 정권을 상실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를 만회하려 한다는 의혹을 갖게 되었다(Westad 2007, 316). 따라서 소련은 무력 수단을 동원하여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친미화를 저지하려 했던 것이다. 결국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아민 대신 인민민

주당의 파르참 정파인 바브라크 카르말(Babrak Karmal)로 대체하는 쿠데타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파르참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카터행정부의 소련의 아프간 침공에 대한 대응은 브레진스키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의 강경책으로 나타났다. 1979년 이란을 상실한 미국은 소련의 남쪽에서 유지해 왔던 감청기지, 활주로, 군수품기지, 군수의 이점들을 상실하게 되면서 지정학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Tanner 2010, 377). 미국은 강경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소련에 대한 곡물수출 금지, 미국 해역에서 소련의 어업권 박탈, 제2차 전략 무기제한협정(SALT II) 의회 비준 제출 연기,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을 표명하면서 소련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였다(Tanner 2010, 384).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1980년 2월 브레진스키는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소련군 퇴각을 위해 지아 울 하끄(Zia ul-Haq) 대통령과의 비밀 작전계획을 논의하고 아프간 국경지대를 시찰하였으며, 귀국 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무자헤딘 육성전략을 구체화시켰다. 따라서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이미 미국의 대아프간 전략은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의 베트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기조 위에 추진되고 있었다(Westad 2007, 328-329).

레이건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무자헤딘 지원전략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파키스탄 정보기관인 삼군통합정보부(ISI: Inter-Services Intelligence)의 수장인 아크타르 압둘 라흐만 칸(Akhtar Abdur Rahman Khan) 장군은 무자헤딘 훈련 베이스 캠프를 조직했다. 소련과의 전쟁에서 최전선이 된 파키스탄은 1981년 레이건

행정부로부터 32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 금액은 CIA가 아프가니스탄 반군에게 무기 공급을 위해 할당한 자금이었다(Tanner 2010, 402-403). 특히 1986년 4월 레이건 정부는 스팅어 미사일을 무자헤딘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한다. 스팅어 미사일의 파괴력으로 무자헤딘은 1987년에 270대의 소련군 항공기를 격추하며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후 전장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소련은 1988년 4월 14일 제네바 회의에서 9개월 내 철군에 합의하게 되었다(Tanner 2010, 426-427).

이와 같은 미국의 무자헤딘에 대한 지원은 글로벌 냉전 대결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지역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미국 냉전 외교의 산물로서 볼 수 있다. 훗날 글로벌 테러리즘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국과 지하디스트의 연대 전략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브레진스키는 “세계사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일부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인가 아니면 동유럽의 해방과 냉전의 종식인가?”라며 반문을 제기했는데(Cooley 2001, 51-52), 이는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글로벌 냉전 전략 수립에 치중한 나머지 지역적 특성의 변형이 초래할 문제를 중시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냉전기 미국과 이슬람주의 간의 연대는 냉전기간 동안 꾸준히 모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II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아랍 민족주의가 창궐하는 시기에 미국은 무신론의 공산주의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국가 연대 건설을 시도하였다. 다시 말해서 메카, 메디나 성지의 수호자로서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권위를 활용한 아랍

민족주의 상쇄전략이 추진되었고, 이후 냉전이 위기로 봉착했을 때마다 ‘미국 지도부는—공화당과 민주당 구분없이—정치 이슬람을 혁명적 세속 민족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효과적 방어기제’로 활용하려고 시도했다(Gerges 2011, 166). 그리고 미국과 이슬람주의 간의 연계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마침내 글로벌 지하드(Global Jihad)라는 의도하지 않았던 혁신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3. 정치 이슬람의 혁명적 변형으로서의 글로벌 지하드의 형성

미국과 아프간 무자헤딘(Mujahideen) 간의 연대는 무신론의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대의를 공유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지하디스트들의 양성을 통해서 미래 알카에다와 같은 초국가적 지하드 그룹의 출현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냉전 이후 ‘먼적(far enemy)’과의 대결을 강조하는 글로벌 지하드의 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기간 동안 정치 이슬람과 미국의 냉전 전략 간의 상호작용이 빚어낸 변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Gerges 2009).

소련이 침공하자마자 파키스탄에 본거지를 둔 정파가 지역 부족들의 지지와 외부의 지원 증가와 함께 크게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다. 특히 페샤와르에 본부를 둔 아프간 저항세력, 대표적으로 굴부딘 히크마티야르(Gulbuddin Hekmatyar)가 이끄는 히즈비 이슬라미(Hezb-i-Islami)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히크마티야르는 헤라트 봉기 이후 인민민주당의 심각한 탄압, 7개의 주요 분파의 전략

과 작전 영역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정치 이슬람 운동을 수행할 수 없었지만 소련의 침공을 이용해 전열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부상하게 된 인물이다(Westad 2007, 326). 정치 이슬람 운동에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 왔던 많은 지역 부족장들이 소련 침공 이후 히즈비 이슬라미와 같은 이슬람 단체와 협력을 시도하게 된 것은 미국으로부터 무기체계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세속 정부보다 이슬람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Westad 2007, 326). 무엇보다 아프가니스탄 내에 분산되어 있던 정치 이슬람 운동의 7개 주요 분파들은 전쟁기간 동안 소련에 대한 항거라는 기치 하에 결속하게 되었다. 특히 파키스탄의 지아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투르키 알 파이잘 왕자(Turki al-Faisal)는 소련과의 대결을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내의 두 개의 주요 정파로 대결관계에 있었던 히크마티야르의 히즈비 이슬라미와 부르하누딘 랍바니(Burhanuddin Rabbani)의 자미아티 이슬라미(Jamiat-i-Islami)를 비롯한 이슬람 저항 세력들의 불편한 공존을 강요했다(Westad 2007, 349).

이러한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무자헤딘 정파의 결속과 함께 글로벌 지하드의 형성을 초래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지하드를 수행하기 위해 참전한 무슬림 전사들의 급진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979년과 89년 사이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무자헤딘에게 비밀리에 전달했는데, 오사마 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 지하드 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척후병 역할을 수행했다(Gerges 2011, 167-168). 특히 냉전기간 대소 항거를 목적으로 급

작스럽게 조직되어 오합지졸로 시작했던 빈 라덴, 자와히리 같은 지하디스트는 치열한 전쟁을 겪으면서 냉전의 게임 법칙을 수용한 전략적 행동가로 탈바꿈하였다(Gerges 2011, 169).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란 이슬람 혁명과 더불어 소련의 아프간 침공은 정치 이슬람 운동의 급진화를 가져온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집트, 예멘, 요르단 등 아랍 국가에서 온 무자헤딘들은 그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지하디스트들이 아니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들의 전쟁 참가 목적은 소련을 무슬림의 영토에서 퇴각시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들은 본래 의식화된 이념적 지하디스트(doctrinaire jihadist)가 아니라 고토회복을 지향한 지하디스트(irredentist jihadist)였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원래 자신들의 정부나 혹은 서방세계에 대한 지하드라는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Gerges 2009, 81).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예기치 않은 초국가적 지하드를 확산시키게 되었다. 새롭게 성장한 아프간 참전 용사들은 1989년 소련군 철수로 강력하고 전문적인 유희인력으로 변화했으며, 이집트 알 자마 알 이슬라미야, 파키스탄 자미아티 이슬라미, 알제리 이슬람주의자 등의 극단주의자와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과격화되어 갔다(Gerges 2011, 170). 2000년 공개된 지하디스트 모집을 위한 홍보 영상에서 오사마 빈 라덴은 아프간 무자헤딘이 빈약한 군사재원을 이용해 가장 강력한 군사적 대국을 무찔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초강대국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미국이 러시아보다 더 약하다고 믿는다” 라는 메시지로 아프가

니스탄 전쟁을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 감행을 위한 선전 수단으로 활용했다(Gerges 2009, 85).

결과적으로 1990년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서방세계의 먼 적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초국가적 지하드의 행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글로벌 지하드의 이념적 씨앗은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영토에 이미 심어진 것이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야말로 지하디스트들과 그들의 후원자들조차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혁명적인 변형(revolutionary metamorphosis)’으로서 글로벌 지하드 형성을 촉발시켰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Gerges 2009, 86).

V 결론

이 글은 중동 냉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55년 바그다드조약기구 출범 이후부터 냉전이 와해되는 1980년대 후반까지 중동 냉전사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중동 냉전의 지역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역사에 대한 분석적 서술을 함에 있어서 아랍 민족주의, 아랍-이스라엘 갈등, 정치 이슬람이라는 중동 지역의 고유한 특성의 문제가 미국의 냉전정책을 중심으로 한 냉전의 규정성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냉전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제기되는 중동 냉전의 지역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다.

1. 냉전과 중동 역내 문제의 변형과 방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오스만 제국 영토 비밀 분할계획이었던 싸이크스 피코 협정(Sykes-Picot Agreement), 전후 산레모 회의(San Remo Conference), 세브르 조약(Treaty of Sèvres) 등의 체결을 통해 중동 전역에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제국주의의 영향력이 크게 팽창하였다. 이는 후세인-맥마흔 서한(Hussein - McMahon Correspondence)의 실현이라는 아랍인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서구 열강에 의하여 중동 지역이 근대국가체제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영불이 주도하는 유럽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대체하면서 미소냉전 대결이 중동을 장악하기 시작한 주요 계기는 1956년 수에즈 전쟁의 발발이었다. 특히 전후 중동 냉전 대결의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서 1957년 발표된 아이젠하워 독트린은 중동 냉전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신호탄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국가체제로 급격하게 편입된 중동 국가들은 유럽 제국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국민 형성, 정치체도의 발전,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과 같은 당면한 과제들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수에즈 전쟁이 종결된 직후 유럽 제국주의가 떠난 진공을 냉전의 논리가 차지하게 되면서 중동 역내 과제들의 해결이 또 다시 어렵게 되었다. 이는 온전한 탈식민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작스럽게 냉전적 대결 구도가 중동을 지배하게 되면서 산재한 지역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미소의 냉전적 고려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방치하거나 변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III절과 IV절에서 각각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랍-이스라엘 갈등의 냉전 편입은 실질적인 갈등 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정치 이슬람 운동과 냉전의 규정성 간의 상호작용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초국가적 지하드라는 변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냉전 승리가 최우선 과제였던 미소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의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글로벌 냉전의 승리를 우선시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냉전 대결구도 속에서 파생된 중동 역내 문제의 변형과 방치는 오늘날 중동 정치질서의 혼란을 도태하게 된 역사적 유산으로서 기능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냉전 초월적 정치이념의 확산과 중동 국가의 자율성

중동 지역은 자유주의, 공산주의라는 냉전적 이데올로기 대결을 뛰어넘는 자생적 이념이 사회운동으로서 진영론을 뛰어 넘어 확산되었다. 특히 이집트의 나세르가 주도한 아랍 민족주의 운동이 1950-60년대 아랍 전역에 확산되었으며, 6일 전쟁을 겪으며 쇠퇴하기 시작한 아랍 민족주의를 대체하여 정치 이슬람이 1970년대 이후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냉전의 진영을 뛰어넘는 자생적인 초국가적 이념 변수의 등장은 냉전의 규정성을 능가하는 지역의 독자적 이념 변수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무엇보다 개디스(Gaddis)가 지적한 것처럼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드는 현상(tail wagging the dog)”이 나타나게 되었다. 나세르의 비동맹주의 외교

노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Gaddis 2010, 12-14). 이는 미소가 피후견국의 국가자율성을 제약하기 어려웠음을 암시한다. 일례로 1967년 6일 전쟁 발발 과정에서 미소는 중동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이스라엘, 이집트가 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Stuglett 2013, 61). 또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1956년 제2차 중동전쟁 억제에 사실상 실패하였고, 케네디 행정부 역시 이스라엘의 디모나 핵 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 따라서 냉전 초월적 이념 변수와 중동 국가의 자율성은 중동 냉전의 지역적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글로벌 냉전과의 밀접한 연관성

중동의 지역 냉전은 글로벌 냉전체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는 글로벌 냉전이 지역정치에 미친 파급효과의 측면은 물론 역으로 지역의 냉전체제가 글로벌 냉전체제의 전개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소냉전 대결의 주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한 냉전기 미국 외교정책의 상당수는 중동 지역정책을 고려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일례로서 1957년 아이젠하워 독트린(1956년 수에즈 전쟁 이후 중동 안정을 위한 정책)과 1980년 카터 독트린(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걸프 지역의 안정을 염두에 둔 정책)을 들 수 있다.

특히 중동 지역 냉전의 동학은 글로벌 냉전 전개과정의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 미국은 소련의 군사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데프콘

III를 발동하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지중해로 파견하면서 미소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Stein 2012, 206). 이는 중동에서의 분쟁과 갈등이 데탕트의 와해를 초래하는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또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초래한 미소 간의 긴장 고조는 신냉전의 도래와 레이건 행정부 시기 격화된 냉전 대결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냉전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와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중동 냉전이 글로벌 냉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강석. 2014.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중동 집단방위체제 구상의 좌절.” 『한국중동학회 논총』. 제34권 제4호, 1-25.
- Cooley, John K 저·소병일 역. 2001. 『추악한 전쟁: 아프가니스탄, 미국과 국제 테러리즘』. 서울: 이지북.
- Gerges, Fawaz A 저·장지향 역. 2011. 『지하디스트의 여정: 나는 왜 이슬람 전사가 되었는가?』.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Qutb, Sayyid 저·서정민 역. 2011. 『진리를 향한 이정표』. 서울: 도서출판 평사리.
- Tanner, Stephen 저·김성준 외 역. 2010. 『아프가니스탄: 알렉산더 대왕부터 탈레반까지의 전쟁사』.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Ayubi, Nazih N. 1991. *Political Islam: Religion and Politics in the Arab World*. London: Routledge.
- Gaddis, John Lewis. 2010. “Grand Strategies in the Cold War,”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use III, F. Gregroy. 2010.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Persian Gulf*.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rges, Fawaz A. 2012a. *Obama and the Middle East: The End of America's Moment?*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_____. 2012b. “The 1967 Arab-Israeli War: US Actions and Arab Perceptions,” in David W. Lesch and Mark L. Hass, eds. *The Middle East and the United States: History, Politics, and Ideologies*, 5th ed. Colo: Westview Press.
- _____. 2009. *The Far Enemy: Why Jihad Went Glob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5. “The Kennedy Administration and the Egyptian-Saudi Conflict in Yemen: Co-opting Arab Nationalism.” *The Middle East Journal* 49, No. 2 (Spring), 292-311.
- _____. 1994. *The superpowers and the Middle East: Regional and International Politics 1955-1967*. Boulder, Colo.: Westview Press.
- Halliday, Fred. 2005. *The Middle East in International Relations: Power, Politics and Id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The Middle East, the Great Powers, and the Cold War,” in Yezid Sayigih and Avi Shlaim, eds. *The Cold War and the Middle Ea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halidi, Rashid. 2013. *Brokers of Deceit: How US Has Undermined Peace in the Middle East*. Boston: Beacon Press.
- _____. 2009. *Sowing Crisis: The Cold War and American Dominance in the Middle East*. Boston: Beacon Press.
- Kerr, Malcolm H. 1971. *The Arab Cold War: Gamal Abd al-Nasir and His Rivals, 1958-1970*,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issinger, Henry A. 1982. *Years of Upheaval*. Boston: Little, Brown & Co.
- Lijphart, Arend. 2004. “Consociational Design for Divided Societies.” *Journal of Democracy*, Vol. 15, No. 2(April), 96-109.
- Norris, Pippa. 2008. *Driving Democracy: Do Power-Sharing Institutions W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Quant, William B. 2005. *Peace Process: American Diplomacy and the Arab-Israeli Conflict Since 1967*.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ham, Alvandi. 2014. *Nixon, Kissinger, and the Shah: The United States and Iran in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2. “Nixon, Kissinger, and the Shah: The Origins of Iranian Primacy in the Persian Gulf.” *Diplomatic History* 36, No. 2(April), 337-372.
- Shlaim, Avi. 1997. “Conclusion,” in Yezid Sayigih and Avi Shlaim, eds. *The Cold War and the Middle Ea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luglett, Peter. 2013. “The Cold War in the Middle East,” in Louise Fawcett (e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Middle East*.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ein, Janice Gross. 2012. “Flawed Strategies and Missed Signals: Crisis Bargaining Between the Superpowers, October 1973,” in David W. Lesch and Mark L. Hass, eds. *The Middle East and the United States: History, Politics, and Ideologies*, 5th ed. Boulder, Colo.: Westview Press.
- Takeyh, Ray. 2009. *Guardians of the Revolu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The Origins of Eisenhower Doctrine: The US, Britain, and Nasser's Egypt, 1955-57*. New York: St. Martin's Press.
- Tibi, Bassam. 1992. *Conflict and War in the Middle East, 1967-91: Regional Dynamic and the Superpower*. London: Palgrave Macmillan.
- U.S. Department of State. 1994.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1-1963*. Vol. 17. Near East, 1961-1962.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61-63v17>)
- Westad, Odd Arne. 2007.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qub, Salim. 1991. *Containing Arab Nationalism: The Eisenhower Doctrine and the Middle East*.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Zakai, Shalom. 1996. “Kennedy, Ben-Gurion and the Dimona Project 1962-1963.” *Israeli Studies* 1, No 1(Spring), 3-33.

필자 소개

김강석 Kim, Kangsuk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Department of Middle East and Afric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강사

한국의국어대학교 아랍어과 학사, 한국의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중동정치전공)

논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중동 집단방위체제 구상의 좌절」

이메일 kangsukkim@hufs.ac.kr